

1인가구 '생활형 안전망' 사각지대 제로화

동대문구, 1:1 맞춤 상담 등 고립 해소 지원 강화
마음ZIP·이음마루 등 '동네 플랫폼' 역할 고도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원형)가 올해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안전·정서·생활 여건을 한데 묶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2월 밝혔다. 구는 전체 17만6884가구 가운데 49.5%인 8만7171가구가 1인가구(2025년 12월 기준)로, '혼자 사는 삶'이 특정 세대의 현상

을 넘어 지역의 보편적 실상이 됐다고 보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문화·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맞춤형 상담, 아티 채널 활동,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고, 1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혼자 사는 주민이 필요할 때 도움

을 요청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활형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 성과와 바탕으로 올해는 취약계층 1인가구와 중장년·노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방향은 '불안'의 원인별 맞춤'이다. 우선 정서 위화 1인가구 대상으로 1대1 맞춤 상담을 강화하고, 고립과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 속 문제 해결을 돕는다. 여기에 대안관계 컨설팅을 결합해 '혼자 견디는 시간이 줄어들기 전에'

관계 회복의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신설한다. 생활권 거점도 넓힌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내 서울마을권의 정 동대문점 '마음ZIP'과 경동시장 '이음마루'는 1인가구가 일상에서 둘러 보고, 상담과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동네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운영을 고도화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26 마포구 겨울방학 영어캠프

겨울방학 영어캠프 출성식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최근 구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2026 마포구 겨울방학 영어캠프 출성식'에 참석해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안전한 캠프 활동을 당부했다. 사진은 박 구청장이 '2026 마포구 겨울방학 영어캠프' 참가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설 연휴 '반려견 돌봄센터' 개설
노원구, 16~18일 3일간 운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일부터 설 연휴 '반려견 돌봄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반려견 돌봄센터는 명절 연휴에 발생하기 쉬운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18년 추석을 시작으로 설·추석 명절마다 돌봄센터를 꾸준히 운영해 왔다.

올해는 설 전날인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운영한다. 2일부터 6일까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기구당 1마리씩 총 30마리를 모집한다. 위탁비는 5000원으로, 출발·도입·정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노원구민이 양육하는 ▲출생 후 6개월 이상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건강상태 양호한 ▲8kg 이하 ▲수령생이다. 사회성에 문제가 없고 전염성 질환이 없는 ▲발정 중이 아니어야 한다. 박석진 기자 zin@siminibo.co.kr

구미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도입
필요 재화·서비스 직접 선택
오는 13일까지 30명 모집

경북 구미시가 경북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바우처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애인용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복지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인 장애인 가운데 개인예산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총 30명을 모집한다. 2일부터 13일까지 주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이달 말 선정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바우처 급여의 20% 범위내에서 개인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구미=박영수 기자 pbs@siminibo.co.kr

연천군, 노인들에 '시니어 팜' 일자리
공동체사업 추진 MOU 체결
농업 경험 활용에 소득 창출

경기 연천군농업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 연천군노인복지관은 최근 '연천 시니어 팜(Senior Farm)'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업과 노인복지 연계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월 군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사업을 제안한 김정애 사회복지와장 비롯해 이원희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광종 농업정책과장, 김석진 연천군노인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을 함께 축하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천 시니어 팜'은 지역 노인들의 풍부한 농업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관리하고, 이를 통해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 농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노인일자리 공동체 사업이다. '노인들의 숙련도와 경험을 살린 참여형·지속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20명의 노인이 참여자로 모집과 사업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천군노인복지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자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천=조영희 기자 cho2@siminibo.co.kr

주민 체감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강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시행계획 수립
마음상담소 신설... '9988 체력인증센터' 설치도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난 3차년도 성과를 분석해 4차년도 세부 실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으며, 그간 축적된 보건성과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4차년도 시행계획은 ▲건강자문·영양 ▲건강 접근성 강화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4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구는 2025년 보건소 시설 재단장을 통해 쾌적한 보건으로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번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환경 개선 성과를 적극 반영했다. 가족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음상담소 신설을 통해 주민 정신건강사업을 확대하고,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

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 공모도 연례해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 신설·운영 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서울시 건강증진센터' 운영 방향과 '보건소 통합돌봄 업무계획'도 포함해 서울시 자율성과 연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돌봄·건강관리 기능을 연계해, 주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치매 관리, 이차 비만 예방, 스마트 헬스 관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중·고교생에 전공·진로 경험 멘토링

고양시, '고양유니브' 10기 선발
대학생 멘토 250명 내달 기동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 대학생 멘토단(이하 '고양유니브')의 10기 멘토 250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양유니브(Goyang Univ)'는 고양시 출신 대학생들이 지역에 중·고등학생에게 전공 정보와 진로 경험을 나

누는 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2017년 시작 이후 지난 9년간 약 15만명의 청소년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고양시 대표 진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더 많은 대학생이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운영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10기 모집에는 전공의 다양성과 거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50명의 지원자 중 250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는 200여명에 달하는 다양한 전공의 멘토들이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거 중·고교 시절 멘토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후 멘토로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는 지역 기반의 진로 순환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음을 보여준다. 선발된 대학생 멘토들은 오는 3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멘토링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영희 기자 mjh@siminibo.co.kr

영등포구, '청년 성장학교' 3월 개강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오는 22일까지 총 90명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단계별 역량 강화에 힘쓰는 '청년 성장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 성장학교'는 청년의 삶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력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9~39세 청년 총 90명이다. 취업 준비자, 사회 진입기, 사회 정착기 등 3개 기수로 나눠 기수별 30명씩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1기는 마취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3월 10~26일 매주 화·목요일 총 6회 진행된다. 2기는 사회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관리와 경력관리 등 사회초기에 필요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6월 셋째 주부터 7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 총 6회 운영된다. 3기는 직장 경험 5년 이상의 사회경험 단계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 제재로 교육과 자기 가치관 정립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같은 기간 매주 금요일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성장학교'의 운영 취지와 프로그램 진반을 공유하고, 청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3월5일 개강 발판 5층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 청년 성장학교 참여자 모집 및 세부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구민24) 또는 '영등포 청년 네이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등 기자 yyj@siminibo.co.kr

'발달장애인 수영 프로' 신설
용산구, 이태원초교서 진행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와 공공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태원초 수영장에 '발달장애인 수영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사당대교 40길 19, 이태원빌딩 B층)에서 진행되며,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용산구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지역내 거주 발달장애인 16명이며, 수업의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전문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이 상주한다. 수업은 ▲수영장 환경 적응을 비롯해 두꺼운 수영복 ▲다목적 기초 수영 가능 습득 ▲자유형 연습 등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해,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간추린 뉴스



도봉구, 청소년교육전문강사단 양성교육 수료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오연석)는 최근 총 3회에 걸쳐 도봉구에서 열린 '청소년교육전문강사단(이하서단)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노인·장애인 대상자 이해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의 마지막에서는 기존 강사들이 신규 강사들에게 화교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와 수업 운영 방식, 유의사항을 전했다. 앞으로 강사단은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매달 월례 회의를 열고 교육 자료와 활동 교재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들은 3월 열리는 위촉식을 통해 공식 위촉되며, 이후부터 본격적인 학교 순회 교육 활동을 시작한다. 오연석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단 여러분의 많은 활약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아산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전액 지원
충남 아산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아산 시민으로, 보건소·지하·진료소·당뇨당진검진센터 및 지역내 협회 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경동맥초음파 ▲심폐탄력도 ▲당화혈색소 ▲간지질검사 총 4종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이차적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한 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의료기관은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박영수 기자 pms@siminibo.co.kr

강서구, 한글배움교실 내달 개강... 수강생 접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배움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한글배움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실은 '기초 문해반'과 '역력인정반'으로 나뉘어 구성됐다. '기초 문해반'은 ▲한글교본반(초등학교 1~2학년 수준) ▲한글교본반(초등학교 3~4학년) ▲한글교본반(초등학교 5~6학년)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주별 참가 기간과 수업 속 풀기 문제를 풀기, 시 낭송하기, 예능기 배우기 등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 위주로 진행된다. 총 120명을 모집하며, 동주민센터(가정3동, 발산3동, 광양동, 화곡2동)와 강서평생학습관(광화동 615)에서 주 2~3회씩 대면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실은 3월에 개강하며 정원 미달 시엔 개강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박석진 기자 zin@siminibo.co.kr

성북구, 23~27일 평생학습관 봄맞이 특강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 속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 성북구 평생학습관 봄맞이 특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문화예술, 인문교양,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과 함께 책읽기·인문 등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시민교육 강좌로 구성됐다. 취미 중심 강좌를 넘어 구민이 일상에서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문화를 분야에서는 봄의 말 키템, 아쟁와 자수 카드 파우치, 아로마 캔들, 왁스타펠트, 우리술을 담다(주제: 막걸리 빚기)를 체험형 강좌를 운영한다. 인문교양 분야에서는 기상청 탐보로에게 듣는 날씨와 기후 이야기, 매꾸로 떠나는 세계인문학 여행, 정원의 위로 등 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다룬다. 강좌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성북구청에 방문하거나 평생학습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군포시, 모바일헬스케어에 참여자 210명 모집
경기 군포시 산본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21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쁜 일상으로 인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손쉽게 스마트폰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참여 대상은 19세부터 64세까지의 군포시민 또는 지역내 직장인이다. 참여자는 사업 참여 전 선별검진을 통해 혈압, 공복혈당, 중